

라이트(Wright), 꼬르뷔제(Corbusier), 미스(Mies)의 전시공간구성 특성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Subject of Exhibition Spaces Designed by F. L. Wright, Le Corbusier, & Mies van der Rohe

서수경* / Suh, Swoo-Kyung

Abstract

A museum architecture has been developed as an important representation of a specific period in architectural history. Modern concept of museum architecture has started by Karl Fredrich van Schinkel(1781-1841) through Das Altes Museum(1823-1830) back in early 20th century and it continued to be the model for museum architecture for over 30 years.

By middle of the 20th century, the movement of redefining new model for the new era on the subject of museum architecture was developed. This development was lead by the three masters of the modern architecture at the time, F. L. Wright, Corbusier, Mies and they were responsible and very active in creating new concepts. Their works in museum design became the prototype and they tried hard to make sure their new concepts to be the stepping stone for further development.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three different museums designed by those masters of the modern architecture, particularly on the issue of the exhibition spaces. The purpose of the study will be focused on the point of interior architecture such as the matters of layout and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exhibition spaces. And it will reveal the impact made by those masters on the advanced development of the current generations of museum designers as well as to describe the prototype of exhibition space.

The analyzation was done on FLW's Guggenheim Museum in New York, Corbusier's the National Museum of Western Art in Tokyo, and Mies' Die Neue National Galerie in Berlin. Comparable materials were collected through site visits and reference documents from various publications. It will be ideal if this study can be used for further development in new museum design in this country.

키워드 : 전시공간구성, 건축기장

1. 서론

미술관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으로 특별한 의미로 발전되어 왔다.

미술관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뮤지엄(museum) 자체가 갖는 특별한 기능뿐만 아니라, 한 시대사회의 문화적 면모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뮤지엄의 진화정도는 그 시대사회의 건축과 문화의 진량을 가늠케 하는 척도가 된다.¹⁾

이러한 건축문화적 역할에서 현대의 미술관건축은 칼 프리드리히 반 쉐켈(Karl Friedrich van Schinkel, 1781-1841)의 다스 알테스 뮤

지엄(Das Altes Museum, 1823-30)을 모델로 20세기초 30년 이상을 발전해 오다가 현대건축의 거장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이하 라이트로 표기), 르 꼬르뷔제(Le Corbusier, 이하 꼬르뷔제로 표기),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 이하 미스로 표기)에 의해 정착되어 20세기 중반 건축의 랜드마크(landmark)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세 거장(1인)의 건축이념과 그들의 대표적인 미술관작품을 통하여 전시공간의 구성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또한 미술관건축의 프로토타입(prototype)에 필요한 디자인 요소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가지며, 새로운 전시공간을 계획하는데 가이드라인(guideline)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회원, (주) 민 국제영업설계실 실장

1) 서상우, 세계의 박물관·미술관, 기문당, 1995, p.13

본 연구를 위한 유익한 자료와 분석대상의 내용들은 실사를 통하여 얻어진 것이다.

본문의 내용과 구성은 2장에서 세 거장의 건축이념과 공간구성특성을 비교분석하고, 본론인 3장과 4장에서는 대표작의 전사공간구성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한다.

2. 3대 거장의 건축이념과 공간구성 특성

현대건축을 이끌어 온 3대 거장은 라이트, 꼬르뷔제, 미스로 그들의 건축이념과 공간구성특성을 건축가별로 분석하고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1.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1867-1959)

1893년 독자적인 작업의 시작부터 자연관, 유기성, 중서부 프레이리 하우스(midwestern prairie house), 모더니즘, 그리고 건축을 통한 미국의 특징 탐구에 초점을 두었다.

그는 디자인 모티브로써 격자(grid)에 의해 이루어진 사각형, 원과 삼각형 등의 기본 도형을 사용하였으며, 건축재료와 시공방법에 따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그의 작업은 자연의 질서와 관련있고 있으며, 물리적인 형태와 자연과의 상관성이 인간의 정신상태를 상승시킨다고 믿었다.

(1) 자연관(Principle of Nature)

자연의 섭리를 터득하여 자연에서 유추된 형태들이 그의 건축조형에 기본이 되었다. 따라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창조하고, 자연과 건축의 통일원리로 유기적 건축을 주장하게 된다. 그의 작품은 자연과 조화되도록 의도되었고, 나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디자인되었으며, 내부와 외부의 재료와 공법을 동일하게 처리함으로써 내·외부의 차이를 극소화시켰다.

(2) 프레이리 하우스(Prairie House)

라이트의 초기설계에서 나타난 경향으로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대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자연과의 융화
- 벽난로를 중심으로 한 십자형 평면구성
- 수평선을 강조하고, 입면을 단순하게 처리
- 오픈 플랜(open plan)
- 창은 자연의 문양을 이용하여 기하학적 처리
- 내·외부 상호연계를 위해 테라스나 발코니 설치

(3) 유기적 건축(Organic Architecture)

'유기적'이란 건축은 환경과 혼합되어야 하고, 건축물이 놓이는 대지를 영감이 있도록 만들고, 마치 나무처럼 각 부분은 전체와 연관되어야 하듯 각 공간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내·외부 공간들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가구, 직물, 조명, 유리제품, 식탁보, 조경까지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토탈 디자인(total design)되었다.

유기적 건축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 네모상자와 같은 내부공간에서의 탈피
- 대지의 개성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건축
- 자연에서 온 재료의 사용
- 사회와 정부를 위한 민주적이고도 혁신적인 디자인

(4) 유소니언 하우스(Usonian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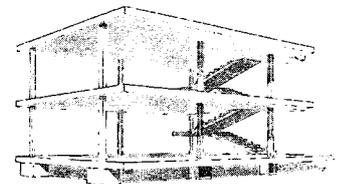
미국식 민주주의의 경험과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건축형식을 창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따라서 그는 미국을 종종 '유소니언(Usonian)'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건축적 사고가 절정에 이르게 된다. '유소니언 하우스'란 라이트의 초기주택에 나타나는 비형식성을 보여준 것으로 예술적 일수도 있는 경제적 주택을 미국에 보급하려고 적당한 크기, 효율적인 계획, 저렴한 건축비를 드린 교외주택을 의미한다.²⁾

2.2. 르 꼬르뷔제(1887-1966)

초기작품은 매우 장식적이거나 후에 장식을 배제하고 기하학적 구성을 특성으로 발전한다. 그는 훌륭한 스승을 통해 건축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독자적 사고의 깊이, 자연형태로부터 추상화된 조형으로까지 유도해 내는 창조적 과정을 철저히 훈련받았다.³⁾

(1) 돔 이노(Dom-ino) 이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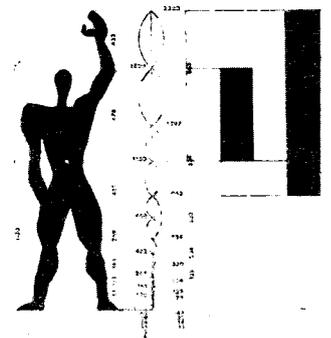
1914년 돔 이노 주택을 통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초기이념으로 발표하였다<그림 1>. 즉, 지면으로부터 바닥을 독립시키고, 계단으로 연결되며, 대량생산에 의해 표준부재를 생산·적용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입주자가 필요한 실내 칸막이와 창을 조립식으로 완성하는 자발적인 건축이라는 사고방식이다.⁴⁾ 이로써 구조벽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창은 구조에서 독립되어 자유로운 형태를 갖게 된다. 또한 현대적 공간실험에 입각한 건축언어의 기본구조를 수립하게 된 것이다.



<그림 1> 돔 이노 구조시스템

(2) 모듈화(Le Modulor)

건축과 기계학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간척도(human scale)에 대한 조화로운 기본 치수 세트로서 모든 부분의 치수에 적용하여 설계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공간의 크기를 모듈화 시스



<그림 2> 르 꼬르뷔제의 모듈

2) Paul Laseau & James Tice 공저, 라이트건축의 타이포로지, 집문사, 1995.

3) 김도식의 공저, Le Corbusier 건축작품 읽기, 기문당, 1999, p.44

4) 최창길의 역저, 르 꼬르뷔제의 생애, 기문당, 1995, p.42

템화 시켰다<그림 2>.

(3) 건축의 5가지 요소

그의 건축을 통하여 나타난 5가지 건축의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 ① 자유로운 평면과 입면
- ② 필로티(pilotis)
- ③ 캔틸레버(canti-lever)
- ④ 지붕정원(roof garden)
- ⑤ 원색사용

2.3. 미스 반 데 로에(1886-1969)

아버지의 공방에서 돌과 벽돌을 정확히 쌓아 올리는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그가 성장하여 순수한 형태와 재료사용에 신중한 배려를 하게 된 것이다. 1921년 유리 마천루(skyscraper) 계획안에서 기둥과 보를 사용함으로써 지지벽을 구조로부터 해방시켰고, 개방적인 평면 구성으로 새로운 실내 공간개념과 오픈플랜(open plan)을 시도하였다.

(1) 코트 하우스(Court House)

정밀하게 연구된 공간개념으로 실내·외부의 상호 연결과 도시생활자가 겪는 한정된 대지조건 안에서 공간의 융통성이 강구된 방안이다.

(2) 우주공간(Universal Space)

엄격한 구조물을 이용하여 주택을 비롯한 공공건축에 우주공간(無柱空間)을 형성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공간을 구획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오픈플랜을 창출하였다. 특히 현대의 미술관건축에서 유용한 공간구성이다.

(3) 커튼 월(Curtain Wall)

국제주의 양식을 전 세계에 보급하게 된 새로운 기법으로서 구조와는 관계없는 천과 유리로 이루어진 그리드 패턴으로 건물의 외피(skin)를 둘러싸는 것이다. 자연채광의 최대유입과 내부공간에서의 시야가 개방적이다.

2.4. 작가별 공간구성특성 비교

이상에서 살펴 본 세 거장의 작품을 통하여 나타난 공간구성의 특성의 비교는 <표 1>과 같다.

작가별 공간구성특성의 공통점은 개방적이고도 '연속성이 있는' 공

<표 1> 작가별 공간구성특성 비교

작가별	공간구성 특성
라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 공간의 유기성 · 내·외부 재료와 공법의 통일성 · 공간의 상호연결 · 적당한 크기, 저렴한 건축비
포르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평면 · 지붕정원
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적인 평면 · 우주공간 · 시야의 개방

간'을 구사하고 있으며, 내·외부공간 및 공간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있고, 그들이 설계한 미술관건축의 전시공간 구성에서도 이와 같은 특징들이 잘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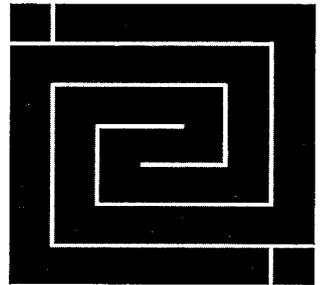
3. 전시공간구성 특성분석

3.1. 분석대상 사례개관

(1) 라이트의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Guggenheim Museum, New York, 1943-59)

19세기말에서 20세기에 이르는 세계적인 컬렉션을 수장하고 전시하는 현대미술관으로 구겐하임 미술관재단이 운영하는 총 미술관의 수는 전세계적으로 5곳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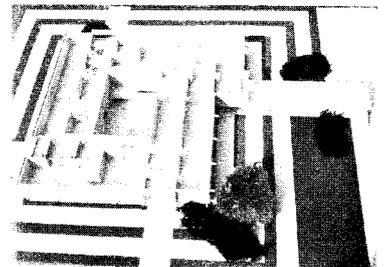
원형의 기존공간에 잇대어 10층의 장방형으로 증축된 부분(Charles Gwathmey와 Robert Siegal 설계)에는 대형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 상부에는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중심부의 빛 우물(light well)이 전관을 밝게 하며, 공간의 연속성을 추구해온 라이트의 마지막 작품이다<그림 3>.



<그림 3> 라이트의 유기적 건축을 의미하는 심볼

(2) 포르투제의 국립서양미술관, 동경 (The National Museum of Western Art, Tokyo, 1957-59)

일본에서 서양미술품만을 전시하는 유일한 미술관으로서 프랑스에 귀속된 마쓰카타 고지로의 수집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포르투제에게 설계가 의뢰된 작품으로 동경 도심공원의 하나인 우에노 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포르투제 특유의 모듈, 필로티, 순회하는 동선 등의 원리가 적용된 정방형의 평면으로, 중앙의 채광장을 통해 유입되는 자연광이 자동 조절되도록 설계된 최초의 미술관이며, 그의 일본 내 유일한 작품으로서 '성장하는 미술관(limitless museum)'⁵⁾의 개념(1939)<그림 4>에 따라 설계된 포르투제의 대표작이다.



<그림 4> 르 포르투제의 '성장하는 미술관'

다. 1979년 포르투제의 제자 중 한사람인 마에카와 구니오에 의해 신관이 증축되었고, 로댕, 쿠르

5) 이 미술관의 기본적 원리는 메인 갤러리의 위치를 건물의 중심부에 근접하게 하면서, 필로티 위에 계획한다는 것이다. 건물 중심부에서 시작되는 정사각형을 한 나선형은 방문자에게 요구되는 집중력의 측면에서 5단적으로 선대적인 분열을 고려하고 있다. 방향설정은 1차 구성에서 펼쳐진 밝고 높은 공간에 의해 조성되며, 7m 폭과 5m 높이의 모듈러 요소는 정사각형을 한 나선형의 벽 조명으로 완벽한 규칙성을 가능하게 한다. 벽에 있는 단순 개구부들은 다른 갤러리들과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시선을 열어 주며, 전체 범위에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준다.

배, 모네, 르노와르, 고갱을 비롯하여 르네상스 이후 20세기 중엽까지의 예술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3) 미스의 신 국립미술관, 베를린 (Die Neue National Galerie, Berlin, 1962-68)

미스의 모국에 설계된 국립미술관으로 그가 일관성 있게 추구해 온 공간개념과 구조미, 그리고 개발된 건축기술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한 작품이다. 마태교회 광장에 위치한 대지는 전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기단을 조성하여 건물의 수평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서쪽 면에는 반지하의 전시공간을 확보하였고, 후원에는 야외조각정원을 계획하였다. 지상에는 오픈플랜의 대공간을 두었고, 지하전시공간은 선큰가든(sunken garden)을 이용하여 자연광이 실내로 유입되도록 설계되었다. 내부공간의 구성은 이미 바르셀로나 독일관, 환스 워스(Farnsworth) 전원주택, 크라운 홀(Crown Hall) 등에서 시험한 바 있는 오픈플랜의 무주공간을 창출한 것이다. 총 8개의 기둥(각 변 2개 씩)으로 지지된 전체 크기(65m x 65m)에 8.4m의 천장고로 쾌적한 공간을 구성하였고, 내·외부가 연속될 수 있도록 4면을 유리로 처리하였으며, 깨끗한 유리벽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둥으로부터 유리벽을 안쪽으로 후퇴시켰다. 또한 기단과 대지와의 연결을 위하여 쉐켈(Karl Friedrich van Schinkel)의 세계를 연상시켜주는 폭이 넓은 계단을 설치하였다.

3.2. 전시공간구성 특성

(1)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주 전시장 중앙부를 개방시켜 천창과 더불어 거대한 원형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1층부터 6층까지 층의 구분없이 전체가 3°의 경사를 갖는 램프(ramp)로 연결된 무한정 공간으로서 동선의 교차없이 지속적인 감상효과를 제공한다. 따라서 관람동선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상층에서 내려오면서 이루어지고, 중앙의 천창을 통한 자연채광은 전관을 밝혀 주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실내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원형의 주 전시공간에서는 주로 기획전이 열리고, 별동의 전시실에서는 상설전시가 이루어진다. 전시벽면은 주로 외곽 쪽의 연속된 벽으로 일률적이어서 변화되는 전시효과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곡선벽면과 램프로 인한 대형작품이나 긴 작품의 전시가 불가능하며, 기획전과 상설전시가 혼합되어 동시에 두 전시를 동시에 관람할 수는 있으나 관람동선이 문제화된다. 또한 기획전을 위한 너무 엄격한 원형의 주 전시공간 형태로 말미암아 소장품의 장래증가에 따른 상설전시공간의 가동성을 얻기 어렵고, 내부공간의 지나친 건축적 조형미로 인하여 전시품들의 예술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절감되는 경향이 있으며, 전시벽면의 상부에서 유입되는 역광과 개방된 형태로부터 유발되는 동선흐름의 인지에 따라 집중관람의 분위기를 저해한다.

그러나 이 미술관은 라이트의 유기적 건축공간을 성취한 작품으로서 원형의 외부조형이 이루어내는 개방된 내부공간은 극적인 효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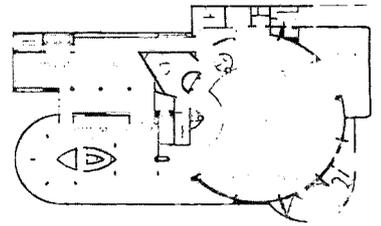
만들고 있다<그림 5, 6>.

(2) 국립서양미술관, 동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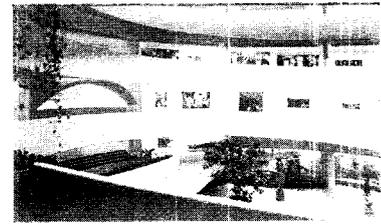
‘정장하는 미술관’ 개념 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시공간의 연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각 전시실은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연결되고, 실과 실 사이의 개구부를 통한 1, 2층 공간간의 시각적 연계는 서로 인접해 있지만 다른 성격의 두 공간들이 만들어 내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인접한 공간의 기능을 암시해 주며 한계가 없는 미술관(museum without limits)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포르뮈체가 설계한 본관은 상설전시와 노출전시가 되어있고, 증축된 신관에는 기획전시, 특별전시 및 케이스에 넣은 보존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원에는 야외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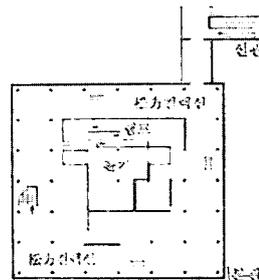
수직이동을 위해 램프가 중앙에 위치하며, 전시공간은 기획전시의 상설전시의 규모에 따라 가동적으로 변화되고, 특유한 삼각형 형태의 천창에서 유입되는 자연광이 전관을 밝혀주며 수직으로 개방된 공간의 깊이를 더해준다<그림 7, 8>.



<그림 5> 구겐하임미술관 평면도



<그림 6> 구겐하임미술관 전시공간



<그림 7> 국립서양미술관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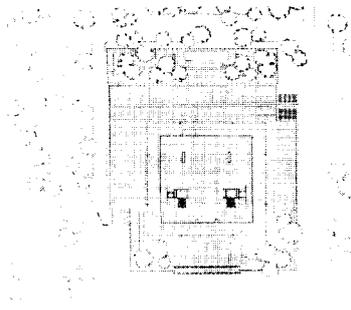
<그림 8> 국립서양미술관 전시공간

(3) 신 국립미술관, 베를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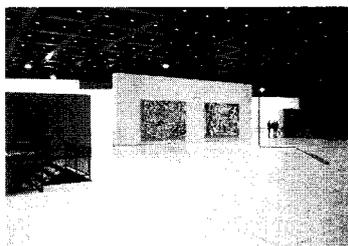
전시공간은 1층의 특별전시를 위한 개방된 무주공간과 하층의 크고 작은 상설전시공간과 지원시설 및 사무공간으로 대별된다.

상층의 대공간(약 2,500㎡)은 4면이 유리벽으로 처리되어 내·외부의 구분이 없으며, 유리벽으로부터 7.2m 뺀이나간 지붕구조물의 끝선은 포티코(portico)를 만들어주며 실내로의 직접적인 자연광 유입을 조절하고 있다. 대공간은 전시내용에 따라 이동벽으로 구획이 가능하며, 특히 어떠한 현대작품전시도 수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다. 지하층은 두 개의 크고 작은 전시가 가능하며, 선큰가든으로부터 자연광을 받고 있다.

유니버설 스페이스 형식은 전시의 가변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떤 전시도 가능한 융통성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대의 전시공간계획에 고려될 사항이다<그림 9, 10>.



<그림 9> 신 국립미술관 1층 평면도



<그림 10> 신 국립미술관 전시공간

3.3. 전시공간구성 특성비교

세 거장이 설계한 미술관 작품을 통하여 나타난 전시공간구성 특성의 비교는 <표 2>와 같다.

<표 2> 전시공간구성의 특성비교

작가별	전시공간구성 특성
라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한정 공간의 연속성 · 대공간을 중심으로 한 외곽벽 전시 · 램프를 이용한 강제적 관람동선 · 천창을 통한 자연광 유입
꼬르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개념의 연속성 · 무창의 외곽벽 전시 · 방과 방 사이 개구부 설치 · 램프를 이용한 관람동선 · 천창을 통한 자연광 유입
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된 우주공간 · 어떤 전시형태도 수용가능 · 높은 천장으로 쾌적한 공간감 · 자유로운 동선체계 · 측창으로부터 자연광 유입

작가별 전시공간구성 특성의 공통점은 공간의 구획없이 공간의 연속성과 대공간으로 구성하며, 어떤 전시형태도 수용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자유로운 관람동선과 수직연결을 위해 라이트와 꼬르뷔제는 램프를 사용하였으며, 전시공간의 쾌적성을 위해 높은 천창고와 개방적인 공간으로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3대 거장의 건축이념과 그들의 대표적인 미술관작품의 전시공간구성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미술관건축의 프로토타입을 구성할 수 있는 디자인요소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비교 연구한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공간을 개방적으로 처리하여 가변적 공간을 확보

둘째, 전시공간의 연속성 및 무한정성을 추구

셋째, 수직관람동선을 위해 램프의 적용

넷째, 자연광 유입을 위한 건축적 해결

다섯째, 전시공간구성의 쾌적한 환경 배려

여섯째, 예술품이 가진 가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질세되고 세련된 공간의 창출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그들이 보여준 공간구성의 특성들은 폐쇄적인 근대미술관의 형태 및 기능에서 벗어나 급속하게 변화되어 가는 현대사회구조와 다변화되어 가는 관람객의 문화적·지적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미술관 환경개선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었고, 후기 모더니즘 이후의 많은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는 제 2, 3세대 건축가의 작품들과 그 내용은 <표 3>과 같으며,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기고 싶다.

<표 3> 거장의 영향을 받은 작가와 작품 / 내용

작가별	제 2, 3세대 건축가의 작품 및 내용
라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처드 마이어(Richard Meier)의 하이 미술관(High Museum of Art) / 대공간의 구성과 천창 · 마리오 보타의 장 텅글리 미술관(Museum Jean Tinguely) / 강제적 관람 동선
꼬르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처드 마이어의 수공예 미술관, 바르셀로나 미술관 / 램프와 자유로운 곡선 · Abraham Zabdovsky, Teodoro Gonzales de Leon의 타마요(Tamayo) 미술관 / 방과 방 사이의 개구부 · Josep Llus Serri의 미로 미술관(Joan Miro Fundacio) / 공간기능의 암시
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종성의 Brown Pavilion / 우주공간의 개방적 전시형식 · 렌조 피아노, 리처드 로저스의 퐁피두 센터 / 우주공간의 개방성

참고문헌

1. Bruce Brooks Pfeiffer, Frank Lloyd Wright, Borders Press, 1998
2. 김도식 외, Le Corbusier 건축작품 읽기, 기문당, 1999
3. 최장길 외, 르 꼬르뷔제의 생애, 기문당, 1995
4. 서상우, 세계의 박물관·미술관, 기문당, 1995
5. Werner Blaser, Ludwig Mies van der Rohe, Gustavo Gili, 1972
6. Willy Boesiger, Le Corbusier, Gustavo Gili, 1972
7. 윤정섭 역, 현대건축의 거장 미스 반 데 로에, 전우사, 1996

<접수 : 1999. 11. 1>